

근시 교정용 렌즈 착용, 각막 손상 가져올 수 있다

지난해 3월 4일자 미국 OSN안과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들에게 근시 교정용 렌즈 착용 때문에 각막이 손상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근시를 교정한다고 잠자는 시간인 밤에만 렌즈를 착용하고 아침에 콘택트렌즈를 제거하면 일시적으로 근시가 교정돼 안경 없이도 잘 볼 수 있으며 근시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 밤새 일시적 근시 교정용 하드 콘택트렌즈(Rigid gas-permeable:RGP 렌즈)를 사용하는데 이 렌즈는 내면 중앙을 평평하게 특수 제조, 각막 표면을 눌러줌으로써 일시적으로 각막 중앙 부분이 평평해져 마치 굴절력이 감퇴돼 근시가 없어지지만 다시 오후에는 원상 복귀되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잠잘 때 착용해야 한다.

국내에도 'Orthokeratology'의 약자인 미국의 OK 렌즈, 한국 루시드 콘택트렌즈가 만든 LK 렌즈, 미국 보스틴의 드림 렌즈 등이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안과 의사의 지시 없이 잘못 사용하면 이로 인해 오히려 눈 각막에 손상을 주어 각막궤양과 후일 반흔이 생기게 돼 결국 영구적인 시력 손실을 가져온다고 홍콩지역에서 처음 보고된 바가 있다.

홍콩의 중국대학교 AL 영 박사 등은 OK 렌즈 착용으로 인한 각막궤양이 발생한 환자 6명을 보고했다. 이들의 나이는 9

세에서 14세의 어린이들로서 이들이 자는 동안 OK 렌즈를 8~12시간 착용시켜 근시의 일시적 교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들 6명에게서는 흔히 한 눈에 세균성 감염을 일으켰으며 감염 시기는 OK 렌즈 착용 후 3~36개월이 지나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6명의 환자 중 5명은 세균 검사에서 모두 녹농균이 검출됐다.

OK 렌즈는 뒤의 베이스 커브를 평평한 후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막에 접촉돼 각막 중앙의 만곡이 일시적으로 눌러서 평평해진다. 이에 따라 각막 굴절력이 감퇴됨으로써 근시가 교정되는 원리를 갖고 있다. 미국 안과학회에 따르면 이러한 근시 교정용 RGP 렌즈인 OK 렌즈는 미국의 겸안사가 1960년도에 개발한 것으로 요즘 중국이나 한국 등지에서 라식수술을 할 수 없는 초등학교, 중·고교생에게 유행되고 있어 이의 남용으로 인해 각막 손상에 의한失明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김재호(인제대 서울백병원 21C안과병원) 교수에 의해 확인됐다.

조모(29) 양은 양안 근시성 난시(우 1.0x-1.50D-1.0Dx170° :좌 1.0x-3.00D-1.00Dx160°)가 있어 이를 교정을 위해 시내 모 안과에서 모 제품의 OK 렌즈를 구입, 1년 6개월간 양안에 착용 중 지난 2002년 11월 23일 갑자기 오른쪽 눈이 아

프면서 눈물이 나오고 시력 장애가 있어 모 대학병원 안과에 입원, 응급치료를 받았다. OK 렌즈에 의한 중앙부의 비세균성(?) 각막궤양은 항생제 점안(산텐, 크라비츠)과 함께 삼일의 오큐메토론, 알콘의 막시트를 안연고 등의 사용으로 다행히 일단 중지됐다. 하지만 이로 인한 반흔이 남아 우안 교정시력은 안경을 쓴 후 0.3(0.5x-0.5D-0.75Dx40°)으로 반감됐다. 그 후 계속 치료해 5개월 후 오른쪽 눈의 시력은 0.4(교정 0.7)로 개선돼 이제 교정시력 개선은 70%까지 다행히 회복된 상태다.

OK 렌즈의 적응 범위에 대해 회사 홍보 책자에는 난시를 포함한 근시 마이너스 0.75~마이너스 7.00D가 치료 대상이고, 나이는 7세 이상 초등학교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눈 각막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안과 전문의의 특별한 관리와 지식 없이 함부로 판매하고 착용하는 행위는 위험만 조장하게 된다. ❶



김재호 명동안과의원 원장
가톨릭대 의과대 명예교수, 재단법인 선산안과연구재단 이사장, 가톨릭 의과대 및 동대학원졸업(의학박사), 존스홉킨스대학병원 및 미 안과연구소에서 연구, 일본 도쿄대 의학부 안과학교실에서 연구.